

Global Market Report

# 아베노믹스 2년 성과 진단 및 향후 전망

# CONTENTS

## 목 차

### 요 약 / 1

---

#### I. 아베노믹스 개요

---

- 2 | 1. 아베노믹스의 배경 및 개념
- 3 | 2. 아베노믹스 정책

#### II. 아베노믹스 성과와 관전 포인트

---

- 4 | 1. 아베노믹스 정책의 성과
- 5 | 2.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
- 6 | 3.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수출입
- 7 | 4. 아베노믹스 현재 성적표

#### III. 아베노믹스의 향방

---

- 10 | 1. `14.12.14 총선결과
- 10 | 2. 아베노믹스 재개

#### IV.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

- 12 | 1. 엔저 장기화에 대응
- 13 | 2. 일본시장 진출전략 재점검

## 요 약

### □ 아베노믹스 개요

- 아베노믹스는 脫디플레이션을 위한 아베내각 경제정책의 통칭으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성장전략으로 장기적인 성장력을 높이는 시나리오
- (금융정책) 2% 물가상승률 달성을 위해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을 도입
- (재정정책)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 시도
- (성장전략) 규제개혁 등 시장 환경을 정비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

### □ 아베노믹스 성과와 관전 포인트

-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
- 성장전략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음.
- (경제)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완만히 흘러가고 있었으나 '14년 4월 소비세 인상(5%→8%) 후 한계가 보이기 시작
- (수출입) 엔화 기준 수출은 늘었지만, 수출 물량 개선은 나타나지 않음. 수출 증가폭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 무역적자 확대
- (역효과) 엔저도산이 증가하는 등 아베노믹스 부작용도 발생

### □ 아베노믹스의 향방

- 안정된 정권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실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 (경제·산업) 정책의 변경이나 대폭적인 방향 수정은 없을 전망이며, 아베노믹스 제3의 화살인 성장전략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
- (외교·통상) 적극적으로 한국, 중국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TPP 등 자유무역협상이 가속될 전망

### □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 아베노믹스 추진의 장기화가 확실시 되는 만큼 대외 경제요건을 고려하여 엔화 변동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일본의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및 이에 따른 진출전략 필요

I

아베노믹스 개요

1. 아베노믹스의 배경 및 개념

□ 배경

- 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의 붕괴와 함께 장기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돌입
  - 특히 1997년의 소비세율 인상으로 현저해진 디플레이션으로 일본 경제는 소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을 경험
- 아베총리는 경제성장이 아베정권의 최우선 과제라 판단, 디플레이션 탈피에 대한 결의 표명
  - 일본 의원연합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는 모임」의 전신은 「디플레이션·엔고해소를 확실하게 하는 모임」

□ 아베노믹스 개념

- 아베노믹스는 脫디플레이션을 위한 아베내각 경제정책의 통칭으로 ①금융정책과 ②재정정책으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③성장전략으로 장기적인 성장력을 높이는 시나리오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① 금융정책▶	② 재정정책▶	③ 성장전략▶
인플레이션 목표 2% 양적완화, 엔고 시정	대규모 공공투자	규제완화 및 구조개혁 법인세 감세 등
양적·질적금융완화 도입 (2013.4.4) 양적·질적금융완화 확대 (2014.10.31)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발표 (2013.1.11)	일본재흥전략발표 (2013.6.14) 일본재흥전략개정 (2014.6.24)

## 2. 아베노믹스 정책

- (금융정책) 2% 물가상승률 달성을 위해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도입
  - 금융시장에서 일본은행의 조절대상을 금리에서 Monetary base<sup>1)</sup>로 변경, Monetary base가 연간 약 60~70조 엔 상당 증가하도록 금융시장을 조절
  - 일본은행이 보유하는 장기국채의 잔고가 연간 50조엔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국채를 매입, 매입하는 국채의 평균잔존기한을 3년에서 7년 정도로 연장
  - EFT<sup>2)</sup> 및 J-REIT<sup>3)</sup> 보유 잔고 역시 각각 연간 1조 엔, 3백억 엔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매입
  - 2%의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까지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지속
- (재정정책)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 시도
  - 10조엔 규모의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발표
    - \* 사전방재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위한 10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 (성장전략) 규제개혁 등 시장 환경을 정비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
  - '13년 6월 일본재흥전략\*을 통해 세 가지 액션 플랜을 제시
    - \* 10년 간 평균 명목GDP성장률 3%, 실질GDP성장률 2%을 목표로 하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으로, '14년 6월에 이를 보완·개정하였음.

### 일본재흥전략의 세 가지 액션 플랜

일본산업부흥 플랜	전략시장창조 플랜	국제전개전략
- 긴급구조개혁 프로그램 - 고용제도개혁·인재 강화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추진 - 세계최고수준 IT사회 실현 - 입지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혁신	- 국민의 건강장수 촉진 - 클린·경제적 에너지 보급 - 안전·편리·경제적인 차세대 인프라 - 세계를 사로잡는 지역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전략적 통상관계와 경제연대 추진 - 해외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 성장을 지탱하는 자금·인재 등에 관한 기반 정비

1) Monetary base : 일본은행권발행액+화폐유통액+일본은행당좌예금잔고

2) ETF : Exchange Traded Fund

3) J-REIT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II

아베노믹스 성과와 관전 포인트

1. 아베노믹스 정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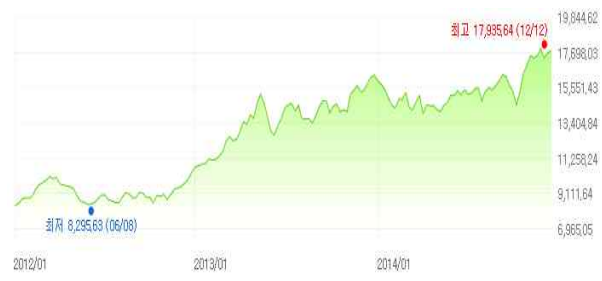
□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

- 일본종합연구소(2014.12)는 아베노믹스를 구성하는 세 화살 중 두 화살이 제 역할을 하여 최우선 과제였던 디플레이션 탈피는 일정부분 달성된 것으로 판단
- 한국은행(2014.6)도 아베노믹스가 시행 첫해인 2013년 중 경기의 완만한 회복, 물가오름세 확대 및 금융시장 호전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
- 양적완화 → 엔화약세\* → 기업 수익성 개선 → 주가상승\*\*
  - \* 엔화약세: 2012.2.3 1달러 76.11엔 → 2014.12.5 1달러 121.4엔 (약 59% ↓)
  - \*\* 주가상승: 2012.6.8 8,295.63엔 → 2014.12.12 17,935.64엔

엔/달러 환율 추이



닛케이 평균 추이



□ 성장전략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음.

- 일본재흥전략에서는 117개의 KPI<sup>4)</sup> 항목을 설정하고 있으나, 목표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는 항목은 35개 항목에 불과

일본재흥전략(2014년改正) KPI 주요 진척상황

KPI 구분	내용	수
A	목표 이상으로 KPI가 달성되어 진척되고 있는 것	35
B	A만큼 KPI가 달성되지 못한 것	17
F	시책의 실행자체가 KPI로, 매년 실행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것	20
N	향후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평가가 어려운 것	45
합계		117

\* 자료원 : 수상관저, 산업경쟁력회의(2014.9.18)

4) Key Performance Indicator

## 2.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

-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완만히 흘러가고 있었음.
  - 엔화약세 · 주가상승 → 기업실적개선 → 임금상승\* → 가계소비 회복
    - \*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임금상승에 관한 follow-up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을 인상했다고 밝힘. 조사에 따르면 상용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에 대해 ‘올리겠다/올렸다’고 답한 기업이 2013년 89.1%, 2014년 92.8%
-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5%→8%) 이후 한계가 보이기 시작
  - 소비세 인상 이후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가계소비 및 기업설비투자 큰 폭으로 감소
  - 임금상승\*은 지속되고 있었으나 소비세 인상분(3%)을 따라잡지는 못함.
    - \* 후생노동성은 2014년도 「임금상승 등 실태에 관한 조사」에서 1인당 평균임금의 개정(인상)액이 2013년 대비 879엔 증가했다고 발표, 개정(인상)율은 1.8%

### 일본 GDP 실질성장률

(%, 전기비 계절조정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아베노믹스 전		아베노믹스 1년				직전*	소비세인상 후	
GDP	-0.5	-0.2	1.5	0.7	0.4	-0.4	1.4	-1.7	-0.5
가계소비	-0.4	0.1	1.3	0.8	0.3	-0.1	2.2	-5.2	0.4
기업설비투자	-1.2	-0.6	-0.9	2.5	0.5	1.0	6.2	-4.7	-0.4
공적투자	-3.3	-0.1	4.6	3.1	5.1	1.6	-2.7	0.9	1.4

\* 소비세 인상 직전, 일시적으로 가계소비가 증가한 시기

\*\* 자료원 : 내각부, GDP속보(2014.12.8.)를 바탕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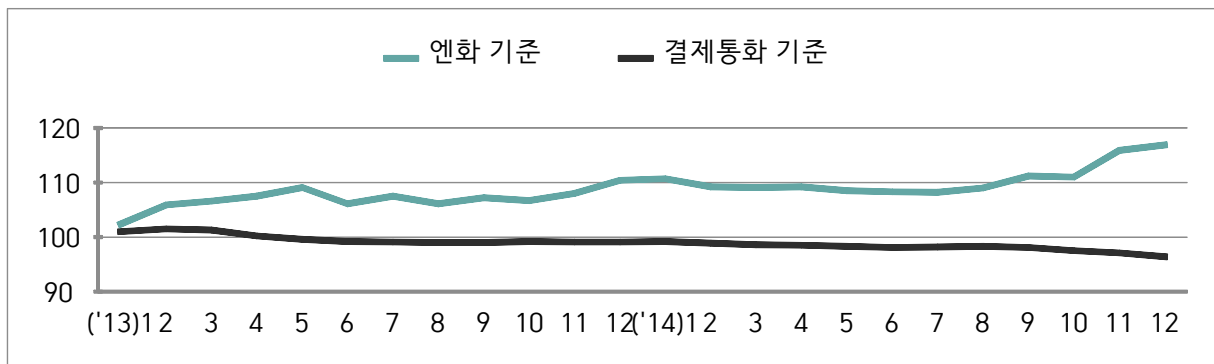


### 3.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수출입

□ 엔화 기준 수출은 늘었지만, 수출 물량 개선은 나타나지 않음.

- 일본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엔저의 영향 축소된 것으로 보임.
  - \* JBIC<sup>5)</sup>의 「일본 제조기업의 해외전개에 관한 조사 보고」에 따르면 일본 제조업체 해외생산비율은 31.0%(`09)→34.6%(`13)→38.6%(`16) 전망
- 일본의 주요 수출상품인 자동차\*와 가전\*\*의 사업구조 및 경쟁력 변화가 한 몫
  - \* 자동차 : 지산지소(地産地所) 사업구조로 환율 변동의 영향 미미
  - \*\* 가전 : IT제품 및 가전의 경쟁력 상실, 일부 업체는 화학·재료분야 진출
- 일본기업의 마진 우선 기조로 달러화 표시 현지가격 미조정

일본기업의 수출물가지수



\* 자료원: 일본은행 통계, 단위: 2010년=100

5)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전신은 일본수출입은행



- 수입 물량 증가세, 수출 증가폭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 무역적자 확대
  - 수출에 비해 수입시 외화 결제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따른 가격 상승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닛세이 기초연구소는 무역수지가 2015년까지 5년 연속 적자일 것으로 예측

**일본 무역동향**

(%, 전년동기대비)

구분	달러 기준(억)				엔 기준(조)				수량지수(2010년=10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지수	증감률	지수	증감률
2012년	8,013	-2.4	8,886	4.2	63.75	-2.7	70.69	3.8	91.6	-4.8	105.0	2.3
2013년	7,192	-10.2	8,389	-5.6	69.78	9.5	81.24	14.9	90.2	-1.5	105.4	0.4
2014년	5,808	-3.1	6,894	-0.5	60.02	3.9	71.24	6.9	90.4	0.5	106.0	1.7

\* 자료원: JETRO 월차무역동향, 2014년은 1월-10월 누계

**4. 아베노믹스 현재 성적표**

- 통화정책은 A, 재정정책은 B, 성장전략은 불확실하다는 의미의 E\*

\* `12년 12월 아베내각 출범과 함께 총리의 비상근 상담역인 내각관방참여(內閣官房參與)에 취임한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는, `14년 12월 7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아베(ABE)니까 통화정책은 A, 재정정책은 B, 성장전략은 아직 모르니까 불확실하다는 의미의 E를 주겠다.”고 언급

- (A) 금융완화 확대에 따른 엔화약세 및 주가상승을 바탕으로 정권 초기인 2013년에는 전반적으로 脫디플레이션을 향해 완만히 순항
  - \* 2013년 중 일본의 실질GDP성장률은 2.1%로 전년(1.0%) 대비 증가

- 아베내각 출범 이후 일본기업들의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 개선

일본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 추이

(전년동기대비, 단위: 억 엔, %)

구분	2013년 3분기		2013년 4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		2014년 3분기		
	이익	증가율	이익	증가율	이익	증가율	이익	증가율	이익	증가율	
전 산 업	영업	114,342	25.2	136,331	28.5	155,433	28.8	127,116	11.2	118,642	3.8
	경상	129,735	24.1	161,908	26.6	174,552	20.2	163,860	4.5	139,651	7.6
제 조 업	영업	37,418	45.0	50,431	69.1	46,848	28.8	34,846	△5.0	39,900	6.6
	경상	45,676	46.9	65,775	49.9	53,940	5.4	55,777	△7.6	54,450	19.2
비 제 조 업	영업	76,924	17.4	85,900	12.6	108,585	28.8	92,270	18.8	78,742	2.4
	경상	84,059	14.5	96,133	14.4	120,613	28.2	108,083	12.1	85,201	1.4

\* 자료원: 재무성 법인기업통계조사결과(2014.12.1)

- 엔저 효과로 訪日 외국인 최대\*, 관광객 대상 백화점, 가전양판점 등 유통업계와 관광 관련 업계 호황으로 일본 경제를 지지

\* 2014년 11월까지 누적 訪日 외국인 12.1백만 명으로 2012년 8.3백만 명 대비 3.8백만 명 증가, 2014년 4월에는 여행수지가 44년 만에 흑자

- (B) 다만 지나친 공공사업 의존은 일본 건설업계 공급능력 축소로 인한 공급 측의 대응능력 감소로, 발주를 해 놓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발,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에 회의적인 의견도.
- (E) 2013년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을 발표하고, 2014년에는 개정안도 내놓았으나 눈에 띄게 발전한 분야는 없었음. 아직 많은 정책이 입법 단계로, 향후 추진 결과에 따라 성패 갈릴 듯.

□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시점 오판

- 디플레이션 탈피를 향해 순항하는 듯 보이던 일본 경제는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특히 가계소비와 기업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
  - \* 2014년 2분기 GDP 성장률 중 가계소비 -5.2%, 기업설비투자 -4.7% 기록
- 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 Paul Robin Krugman은 “이제 아베노믹스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소비세 증세를 하는 것은 일본 경제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소비세증세를 참고 2%의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는 한편, 소비세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실망했다.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탈피한 후 증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제 막 빛이 보이는데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엔저의 역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보임

-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엔저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투자확대나 임금상승을 통한 소비확대로 이어져야 하나,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 부작용 발생
- 엔저가 수출형 대기업을 수익성을 개선시킨 것은 사실이나,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도 초래하여 가계소비가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일부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엔저 도산 과거 최대\*
  - \* 일본최대 신용조사회사인 테이코쿠데이터뱅크는 2014년 11월의 엔저 관련 도산이 42건으로 3개월 연속 과거 최대를 갱신했다고 발표, 2014년 누계는 3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배 증가

아베노믹스 양날의 검

구분	최초 의도	역효과	결과
소비세 인상	- 재정정책을 위한 세수보충 - 재정 건전화	- 디플레이션 출구가 보이려는 시점에서 다시 소비 위축	- 2015.10 예정 소비세 재인상 연기 - 기업에게 임금상승 압박
엔저	- 수출증가 - 국내투자증가	- 수입물가 상승 - 엔저도산 증가	- 수출물량 증가는 없음 - 국내투자 증가하지 않음

### III 아베노믹스의 향방

#### 1. '14.12.14 총선 결과

□ 아베 총리는 경기부진\*을 이유로 2015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8→10%)을 2017년 4월로 연기하며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 명분으로 중의원 해산

\* '14.11.17 내각부의 GDP 속보치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최대 쟁점은 아베노믹스의 성과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은 적었음.
-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이 전체 475석 중 3분의 2 이상인 326석을 차지하며 압승, 재집권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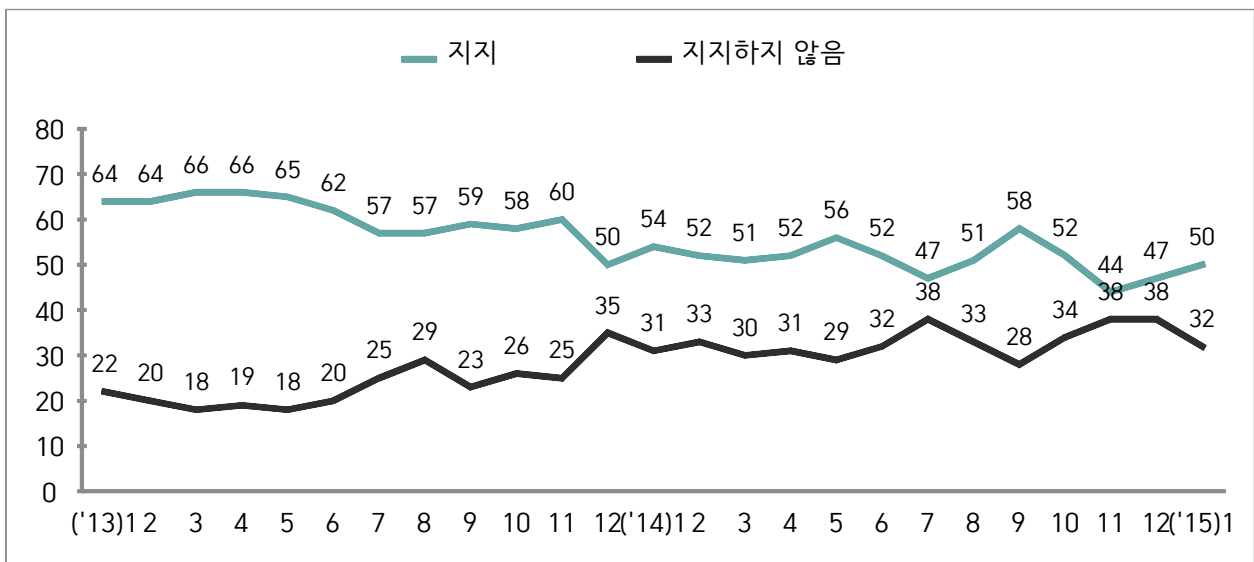
#### 2. 아베노믹스 재개

□ 안정된 정권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실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 아베정권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총리는 선거 압승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 아베정권의 국정장악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

\* 아베내각 지지율(NHK 여론조사) : ('14.10) 52% → ('14.11) 44%  
→ ('14.12 선거직전) 47% → ('15.1) 50%

아베내각 지지율



\* 자료원: NHK 정치의식윌레조사

□ (경제·산업) 정책의 변경이나 대폭적인 방향 수정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제3의 화살인 성장전략 추진이 가속될 전망

○ 엔화약세\* 및 주가상승\*\* 지속될 전망

- \* `15년 연말까지 1달러 112엔 대 중반에서 120엔 대 후반 (메르린치일본증권 FX전략가)
- \*\* `15년 3월 말에는 19,600엔, 12월 말에는 21,730엔까지 상승 (다이와증권 보고서)

○ 법인세\*, 농림수산업, 건강산업 등 규제개혁 추진 예상

- \* 2015년 법인세 개혁(안) : 초년도 법인세 인하폭은 2.51%, 감세금액은 3천억 엔 규모, 인하폭은 2년 안에 3%대를 목표 (현재 도쿄都是 35.64%)

연초 통상국회에서 심의 예정인 성장전략 관련 법안

주제	내용
파견사원 규제	파견 기간의 기한 삭제
노동시간 규제	시간이 아닌 성과로 급여를 결정
혼합진료의 확대	일부 미승인약품과 보험진료를 병행
농협의 재검토	JA(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중앙회의 감사·지도권한 폐지

\* 자료원: NIKKEI

□ (외교·통상) 적극적으로 한국, 중국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TPP 등 자유무역협상이 가속될 전망

○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으로 한일관계 개선이 예상되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개헌 등 우경화에 대한 우려도 있음.

- 아베총리는 `15년 1월 15일 한일의원연맹<sup>6)</sup>의 의원단과의 면담에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언급하며 2015년을 한일관계 개선의 해로 만들고 싶다고 밝힘.

○ 아베총리는 미일방위협력, TPP타결 등 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4월 하순 경)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TPP는 미국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 시 2015년이 실질적 타결시한\*

- \* 한국무역협회 국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대선으로 2015년 후반부터 선거정국에 돌입하게 되어 협상 진전이 어려운 만큼 2015년이 협상 데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6) 1975년 5월 23일 한국과 일본 의원들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만든 단체

## IV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 1. 엔저 장기화에 대응

□ 아베노믹스 추진의 장기화가 확실시 되는 만큼 대외 경제요건을 고려하여 엔화 변동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단기적으로는 결제통화 및 거래조건 변경, 환보험 가입 등으로 대처

#### C사 : 대일 수출업체로 환헛지를 지속, 엔저가 심화된 `12년 이후 26억원의 보험금 수령

- C사는 대일 수산물 수출업체로 `06년부터 환변동보험 이용
  - `06년~`12년 9월까지 25억 원의 이익금 납부, 7억원의 보험금 수령  
→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으로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
  - 이익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C사는 환헛지를 지속
  - 엔저가 심화된 `12.10월부터 26억 원의 보험금 수령, 이익금 1천만원 납부  
→ 실거래 환차손을 보험금으로 메우면서 수익 안정화
- 환헛지의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관리 (한국무역보험공사)

○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기술혁신으로 비용절감, 제품차별화, 마케팅 강화 필요

#### T사 : 재즈마이크를 형상화한 블루투스 스피커, 고가임에도 유력 바이어와 협의 진행중

- 실내 장식품으로 손색이 없는 독특한 디자인과 뛰어난 스피커 성능을 갖춘
- 일본 유력 유통망 바이어의 관심 집중
- 3만 엔에 가까운 고가이나, 디자인 및 성능이 뛰어나 통할 것 (타워레코드사 바이어)
- 한국제품의 우수한 디자인이 아직 일본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는 가격을 넘어 디자인으로 승부해야 할 시기 (도큐핸즈 바이어)  
→ 도큐핸즈, 타워레코드사와 최종 협의 진행 중

## 2. 일본시장 진출전략 재점검

### □ 일본의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기업들의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이에 따른 진출전략 필요

- (건자재) 노후 인프라 보수를 위한 국토강인화기본법 성립
  - 올림픽 특수\*와 맞물려 공공사업 확대로 지속적인 건자재 수요 발생 전망
    - \* 올림픽 주경기장 및 시설 건설 3,800억 엔
    - \* 2015년도 공공사업 예산(안) 5조 9,711억 엔
- (에너지)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력소매 경쟁체제 돌입
  - 2016년 이후 가정에 소매도 시작할 수 있어 타업종의 참가가 잇따르고 있음. 전력소매 자유화 및 소규모 사업자 신규 참여로 해외조달 확대 예상
- (건강식품) 약사법 개정으로 식품의 효능 표시 기준 완화
  - 식품에 대한 연구논문 등을 소비자청에 제출 후 기업 책임 하에 식품기능이 표기가 가능해 짐에 따라 기능성 식품 시장규모는 현재 약 1조 2천억 엔에서 2배 정도 확대될 전망
- (소방기기) 소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수요 발생
  -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 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확대
    - \* '13년 화재경보기 대일 수출 260만 달러
- (IT) 개인번호법 가결, 마이넘버제도 시행
  - '15년 10월부터 개인번호 부여하고 '16년 1월부터 납세, 연금, 보험 처리 시 사용, '16년 1차 운영 시 문제가 없으면 '19년부터 사용 가능 분야 대폭 확대될 전망
    - \* 개인번호와 연동되는 정부의 정보 관리 시스템 8,000개로 추정, 지방정부 및 기업의 도입 비용 2조 6천억 엔 규모 전망





### 작성자

- ◆ 선진시장팀 김기준 팀장
- ◆ 선진시장팀 김광수 차장
- ◆ 선진시장팀 한종훈
- ◆ 선진시장팀 신조희



## Global Market Report 15-007

### 아베노믹스 2년 성과 진단 및 향후 전망

- 발행인 ■ 김재홍
- 발행처 ■ KOTRA
- 발행일 ■ 2015년 1월 27일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 전화 ■ 02) 1600-7119(대표)
-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Global Market Report